

## 조지훈 시의 근대성 연구

김 태 우\*

### 차 례

- |                            |                          |
|----------------------------|--------------------------|
| 1. 서론                      | 4. 혁명의 당위적 이해와 자유민주주의 지향 |
| 2. 전통의 창조적 계승과 민족 정체성 확립   | 5. 결론                    |
| 3. 자연에 대한 미적 수용과 감각적 인식 구현 |                          |

### 국문초록

이 글은 조지훈 시에 드러난 근대성에 주목하여 그 양상과 의미를 파악하였다. 조지훈 시의 근대성은 근대를 한국적으로 수용하여 발현시킨 시적 양상을 보였다.

조지훈 시에서 전통은 근대에 창안된 시대적 요구였다. 전통은 민족의 정신적 기반으로서 민족의 결집을 가능하게 하였고, 나아가 민족의 정체성까지 확립시켰다. 근대의 전통은 당대 현실을 타개할 정신적 가치로서 민족 해방과 민족 국가 건설의 열망을 표출하는 기반이 되었다.

조지훈 시에서 자연은 근대의 폐해를 자각하는 공간이었다. 자연을 통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 근대에 대한 자각은 자연을 미적 대상으로서 수용했고, 이는 인간의 감각을 자극시켰다. 감각은 근대 자연의 관습화된 재현을 거부하고 현재에 맞는 사유를 가능하게 하였다.

조지훈 시에서 혁명은 자유민주주의를 현실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민중들의 주인의식에서 비롯된 당위적 가치였다. 혁명 정신은 선대에서부터 이어져온 혁명의 정신적 가치를 계승하였다. 혁명은 현실 질서를 확립하는 ‘한국적 근대’의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가치였다.

주제어 : 조지훈, 근대성, 전통, 자연, 혁명

## 1. 서론

이 글은 조지훈<sup>1)</sup> 시에 드러난 근대성을 파악하여 그 의미를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지훈 시의 전통 지향은 한국 서정시의 특성을 계승하여 한국 고유의 전통적 가치를 시적으로 승화시킨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이때 조지훈의 시가 형상화한 한국 고유의 전통적 가치는 여러 논자에 의해 근대적 체제에 대응하는 반근대적 가치관으로 설명되었다.<sup>2)</sup>

- 
- 1) 조지훈(1920-1968)은 1939년 『古風衣裳』, 『僧舞』를, 이듬해 『鳳凰愁』를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시작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靑鹿集』(1946), 『풀잎 斷章』(1952), 『趙芝薰 詩選』(1956), 『歷史 앞에서』(1957), 『餘韻』(1964)을 차례로 간행하였다. 이밖에도 수필집, 시론집 등 다수의 저서를 발간하였다. 김필 활동이외에도 조선어학회, 조선문학가협회, 중국문인단 등 다양한 문학적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이 글에서는 조지훈, 『詩-조지훈 전집1』, 나남, 1996.에 수록된 시편을 대상으로 한다.
- 2) 문장과의 상고 취미나 고전전통에 대한 심취는 일제에 대한 ‘반근대주의’ 혹은 ‘비근대주의’로서 의미를 갖는다. (김윤태, 『한국 현대시론에서의 ‘전통’ 연구-조지훈의 전통론과 순수시론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 13집,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청록집』에 실린 시들은 당대의 정치사회적인 맥락에서 ‘저항’의 의미를 내포한다. (방민호, 『조선어학회 사건 전후의 조지훈』, 『우리문학연구』 30호, 우리문학회, 2010.)

그런데 조지훈 시에 대한 이러한 논의의 기저에는 근대=서구라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근대의 이상적 모델을 서구의 근대로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했기 때문에 조지훈 시의 전통 지향은 근대에 대응하는 가치로 한정되어 논의된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조지훈 시에 드러난 근대성의 의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지훈 시에 드러난 근대성<sup>3)</sup>의 양상과 의의를 확인할 것이다.

근대성<sup>4)</sup>은 제도화된 형태로서 다양한 근대적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근대성의 내용과 형식<sup>5)</sup>은 일상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성은 실재하는 시대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sup>6)</sup> 그중 근대의 서구 모델이 근대를 규정하고 판단하는 이상적 준거로 이해

- 
- 3) 근대성이란 근대, 근대화, 근대주의, 탈근대성, 탈근대주의 등의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는 언어군 안에서 사용되며 단일한 특징에 의거해 정의될 수 없다. (김경일,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백산서당, 2003, 11쪽.) 이 글에서 근대성은 근대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 4) 근대성은 근대 특질의 총체적인 표현으로 봉건적이고, 전제적인 체제와 구분되는 성질이나 특징이다. 이러한 근대성은 이행, 순간적인 것, 그리고 우연성을 내재한다. 일시적인 다양한 이상들을 포함하는 근대성 개념에는 더 이상 과거의 본질로서 ‘고대’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불멸적인 것만이 대립된다. (한스 울리히 콰브레히트, 라인하르트 코젤렉 역, 원석영 역,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3-근대적/근대성, 근대』, 푸른역사, 2019, 51-52쪽.) 즉, 근대성은 “현재”, “새로운”, “일시적” (한스 울리히 콰브레히트, 라인하르트 코젤렉 역, 원석영 역, 위의 책, 16-17쪽.)인 가치로서 전근대적인 체제와 구분되는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하나의 경험이다.
- 5) 근대성은 관점에 따라 경제, 사회, 과학, 문예, 종교, 사상적 측면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근대 사상은 근대를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로 이해된다. 문학에서도 사상의 근대적 요소는 전근대와 근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조지훈, 『시의 원리-조지훈 전집2』, 나남, 1996, 277쪽.) 이때 근대 사상은 개인의 자유, 인간의 가치 인식의 자각, 세계 및 인간의 발견, 근대적 국가 의식의 각성 등을 함의한다. (조지훈, 위의 책, 272쪽)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세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인간 중심적 가치를 새롭게 확립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대성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는 당대 현실의 문제의식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6) 박성수, 『근대와 탈근대 또는 새로움에 대하여』, 『문학과학』 22호, 2000, 82쪽.

되는 것은 근대가 서구에서 촉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구적 근대성이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구적 근대성이 비서구 지역 전반에 걸쳐 필연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모델처럼 간주된 것이다.<sup>7)</sup> 그런데 (서구적)근대성의 보편성은 인류에게 적용 가능한 속성이 아닌 전 지구적으로 실재하는 가치이다. 즉, 전 지구적으로 실재하는 근대성이 서구적 근대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근대성은 하나의 경험<sup>8)</sup>으로서 시·공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서구적 근대성이 갖는 보편성은 서구가 시기적으로 선취한 특성이다.

조지훈은 ‘근대’를 서구사의 발전 과정에서 파악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한 서구적 근대 개념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닌다. 한국사 내에 ‘근대’의 서구적 개념과 완전히 부합하는 사회가 전무하기 때문에 ‘근대’의 서구적 개념을 한국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sup>9)</sup> 조지훈은 근대가 한국사 자체의 주체적 발전 과정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면서 ‘한국적 근대’를 한국사의 특성에 입각한 서구사적 통념으로서 인식한다.<sup>10)</sup> 조지훈은 한국적 근대 의식을 당대 현실의 불합리성에 대응하는 정신적 가치로서 주목한다. 한국적 근대 의식이 현실 상황을 직시하는 준거로서 ‘지금 현재’에 부합하는 가치 판단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적 근대의 정신적 가치를 변화하는 현실에 적용하고 대응하는 시대적 대안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한국적 근대성은 근대 의식이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서구적 충

7) 장석만, 『우리에게 근대성 공부는 무엇인가』, 장석만 외 7인, 『한국 근대성 연구의 길을 묻다』, 2006, 돌베개, 26쪽.

8) “오늘날에는 세계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중요한 하나의 경험 양식이 존재한다. 나는 이러한 경험 일체를 ‘근대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근대적 환경과 경험은 지역, 인종, 계급, 민족, 종교, 이데올로기의 모든 경계들을 넘어선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성은 인류 전체를 통일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역설적인 통일, 분열 속의 통일이다.”(마살 버먼, 윤호병·이만식 역,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1994, 15쪽.)

9) 조지훈, 『詩의 원리-조지훈 전집2』, 앞의 책, 271쪽.

10) 조지훈, 위의 책, 273쪽.

격에 부딪쳤다. 개인이 자아를 주체로서 인식하는 과정에서 혼돈은 극대화 되었다.<sup>11)</sup> 개인이 세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가운데 생긴 혼돈은 세계에 대응하는 주체의 문제의식을 가능하게 했다. 한국적 근대성은 자아와 세계가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자각을 통해 자아 스스로 주체의 개념을 각성하는 과정에서 발현된 것이다.<sup>12)</sup> 이처럼 한국적 근대성은 민중들이 당대 현실을 자각하는 과정에서 부각되었다. 한국적 근대성의 현실 지향은 선대의 정신적 가치를 ‘지금 현재’에 맞게 계승하였으며, 민중들의 자발적 실천으로 지속되었다.

조지훈은 서구 근대를 한국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시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는 조지훈의 초기 시에서부터 드러나는데, 이에 대한 정지용의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 정지용은 “조지훈의 회고적 에스프레는 자연과 인공이 결합한 극치의 상태”<sup>13)</sup>라고 극찬한다. 그러면서 “『華戀記』도 좋기는 하였으나 너무도 양징스러워서 『古風衣裳』을 取하였”<sup>14)</sup>다고 하였다. 근대 의식이 투영된 작품의 미흡한 미적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으로 근대성을 형상화한 점에서 의의를 찾은 것이다. 조지훈의 모더니즘에 대한 문학적 이해는 『白紙』 수록작에서도 나타난다. 『白紙』에 수록된 조지훈의 시편에는 이상과 보들레르 등 모더니즘 시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sup>15)</sup> 이렇게 조지훈의 초기 시편에 드러난 근대성은 ‘지금 현재’에 부합하는 시적 가치로 이해할 수 있다.

조지훈의 전통 지향 시에는 모더니즘에 대한 시적 이해가 내재되어

11) 김경숙, 『1920년대 한국시의 근대성 연구1』, 민족문화사연구소 엮, 『민족문화과 근대성』, 문학과지성사, 1995, 302-303쪽.

12) 김경숙, 위의 책, 304-305쪽.

13) 정지용, 『詩選後』, 『文章』 2권, 1940, 171쪽.

14) 정지용, 『詩選後』, 『文章』 1권, 1939, 132쪽.

15) 『白紙』에는 두 가지 경향의 시편들이 나타난다. 하나는 이상 류의 초현실주의적 경향을 보이면서 근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모더니즘 계열의 시이다. 다른 하나는 전통 서정시의 맥락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미적인 것들을 추구한 시들이다. (강호정, 『1930년대 후반 동인지 『白紙』와 조지훈 수록시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77집,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9.)

있다. 전통과 모더니즘은 이질적인 영역이 아니라 연속성을 띤 산물로서 “영원의 지금”<sup>16)</sup>에 존재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조지훈의 모더니즘에 대한 시적 이해는 자신의 시 세계를 정립하는 중요한 시적 기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훈의 시적 경향이 전통 지향으로 경도된 것은 자신의 시를 정립하는 과도기에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전통 지향 시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은 전통을 근대성에 대응하는 시적 가치가 아닌 근대성이 내재된 시적 가치로 새롭게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지훈은 ‘지금 현재’(한국적 근대)에 맞는 시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최근 조지훈 시의 근대성에 집중한 논의들은 주목할 만하다. 김춘식<sup>17)</sup>은 청록파의 시를 단순히 미적 ‘전통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근대성과 전통’의 상호관계를 통해 해명한다. 자연서정, 전통의 발견을 한국의 역사적 근대 체험의 산물로 이해하며 그 결과로서 창안하고 발견된 자연과 전통을 파악한다. 조춘희<sup>18)</sup>는 조지훈 시의 정전 확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서구적 시풍의 습작기 시편이 근대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식민지 지식인의 갈등과 분열의 자의식 형성을 형상화하였다고 본다. 서구적 시풍의 습작기 시편이 고전적 미의식, 한국적 자연미학의 시편들과 함께 조지훈 시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은 조지훈 시를 근대적 맥락에서 이해하였다. 그런데 조지훈 시의 근대적 특성을 초기 시편에 한정지어 논의하였다. 이는 조지훈 시에 드러난 근대성이 식민지 근대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발현된 시대적 반응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지훈 시에 드러난 근대성은 초기 시편에 한정된 것이 아닌 시세계 전반을 아우르는 시적 특성이 다. 다시 말해 조지훈 시의 근대성은 식민지 근대에 표출된 시대적 반응

16) 조지훈, 『현대시의 문제』, 『문학론-조지훈 전집3』, 나남, 1996, 173쪽.

17) 김춘식, 『낭만주의적 개인과 자연·전통의 발견-청록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의 전통과 반전통』, 국학자료원, 2003.

18) 조춘희, 『조지훈 초기시의 혼재 양상 연구』, 『석당논총』 61호,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15.

이 아닌 1960년대까지 지속된 조지훈 시의 미적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지훈 시에 나타난 근대성을 해명하기 위해 일반적인 ‘서구 중심적’ 근대성의 시각이 아닌 근대성의 다중적 양상을 수용하는 시각을 반영한다.<sup>19)</sup> 이를 통해 조지훈 시의 근대성의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전통의 창조적 계승과 민족 정체성 확립

조지훈은 전통적 사유와 행동 양식에 주목하여 이를 시적으로 구현하였다. 여기서 전통은 역사적으로 생성된 살아 있는 과거이다. 전통의 의미를 과거가 아니라 현실의 가치관과 미래의 전망에서 찾은 것이다.<sup>20)</sup> 즉, 전통은 과거의 것을 무조건 계승하는 고정불변의 양식이 아닌 현재의 가치에 맞게 변화되어 창조된 산물이다. 때문에 전통의 계승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정당한 저항으로만 가능하다.<sup>21)</sup> 조지훈 시에서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민족적 가치로서 ‘지

19) 이 시각에서 한국적 근대성은 단순히 ‘후진적 이변’이 아니라 근대성의 한 ‘변전’으로 이해된다. (아이젠스타트, 임현진 외 3인 역, 『다중적 근대성의 탐구』, 나남, 2009, 15-16쪽.) 근대성은 세상에 대한 해석, 사회적 상상, 존재론적 시각, 문화 양식이 결정화되고 발전되는 것으로서 전례 없는 개방성과 불확실성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적 형성체의 발전과 결합에 초점을 둔다. (아이젠스타트, 임현진 외 3인 역, 위의 책, 23쪽.) 근대성은 ‘특정 사회 현상 또는 이것과 결부된 사유방식, 가치관’이 아니다. 근대성은 어떤 특징, 사회현상, 체계도 아니며 역사적, 상황적, 맥락적인 한계 속에서 인간들이 환경과 자신을 해석하는 작업 속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이다. 이 내용은 시대와 장소적 환경적 제약 속에서 항상 다양하게 존재한다. (신중화, 『‘모던modern’의 한국적 개념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사상과문학』 27집, 동양사회사상학회, 2013, 43쪽.) 이처럼 근대의 다중적 양상을 수용하는 시각은 조지훈의 근대 의식과 부합한다.

20) 조지훈, 『전통의 현대적 의미』, 『한국문화사서설-조지훈 전집7』, 나남, 1996, 209쪽.

21) 조지훈, 위의 책, 213쪽.

금 현재(한국적 근대)에 맞게 재구성된다.

조지훈 시의 전통은 한국적 근대에 창안된 전통으로 민족적이고 민중적인 당대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한다. 전통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예전 상황들에 준거하는 형식이나, 거의 강제적인 반복을 통해 제 나름의 과거를 구성한다.<sup>22)</sup> 이 과정에서 전통은 낡은 재료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언어와 고안품들을 발명하고, 낡은 상징적 어휘의 한계를 확장한다.<sup>23)</sup> 더욱이 이러한 전통은 민족의 결집과 단결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켰다.

얇은 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파르라니 깎은 머리 薄紗 고깔에 감추오고/두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빈 臺에 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돌아설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씨보선이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모도우고//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듯 두방울이야/세사에 시달려도 煩惱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깊은 마음 속 거룩한 手掌인양 하고//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우는 三更인데/얇은 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僧舞」 전문<sup>24)</sup>

이 시는 승무의 아름다움과 그에 내재된 정신적 가치를 형상화하였다. 여승의 모습을 형상화한 “하이얀”, “파르라니”의 색채 이미지는 승무의 무대와 그 배경이 되는 “밤”과 대비되어 승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다. 승무의 궁극적 목표는 “별빛”으로 표상되는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여승은 현실의 “세사에 시달”리고 “三更인데”도 “煩惱”에서 벗어나기 위해 승무를 지속하는 것이다. 이렇

22) 에릭 홉스봄, 박지향·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21쪽.

23) 에릭 홉스봄, 박지향·장문석 역, 위의 책, 2004, 29쪽.

24) 조지훈, 「僧舞」, 『靑鹿集』, 을유문화사, 1946; 조지훈, 『詩-조지훈 전집1』, 앞의 책, 40쪽.

계 승무는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려는 실천으로 당대 현실을 타개할 근대 의식을 내재한다. 이러한 근대 의식은 민족 해방과 민족 국가 건설의 열망으로까지 확장된다.

승무는 불교적 제의를 구현하는 하나의 의식이나, 그 정신은 단순히 종교적 구원을 염원하기보다 민족의 전통적 가치가 투영된 하나의 실천으로 이해된다. 한국 근대 불교는 세속의 내적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교리적 차원보다 실천적 차원을 강조한다. 한국 근대 불교가 세속을 초월하는 종교적 차원의 목표를 전통 사상과 결합된 실천적 차원으로서 수행하였기 때문이다.<sup>25)</sup> 따라서 승무는 불교의 제의적 측면보다 전통 사상의 실천적 가치로 이해된다. 여기서 승무의 전통적 가치는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민족의 사상을 현재의 의미에서 재해석된다.

승무는 여승이 종교적으로 완성된 절대자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여승은 종교적 구원을 염원하는 절대자의 모습을 지향하지만, 식민지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인간과 동일한 존재이다. 여승이 속세와의 단절을 추구하며 정신적인 승화를 동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승무의 전통적, 민족적 가치를 속세에서 실천하기 위함이다. 결국 승무는 민족 해방이라는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과 그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는 움직임으로서, 민족이 지닌 고통과 번뇌를 자기반성을 통해 표출한다.

하늘로 날듯이 길게 뽑은 부연끝 풍경이 운다/처마끝 곱게 늘이운 주렴에 半月이 숨어/아른 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곱아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지고/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주빛 호장을 받힌 호장저고리/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살살이 퍼져 나린 곧은 선이 스스로 돌아 曲線을 이루는 곳/열두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초마 끝에 곱게 감춘 雲鞋 唐鞋/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그대는 어느 나라의 古典을 말하는 한마리 蝴蝶/蝴蝶인 양 사푸시 춤을 추라 蛾眉를 숙이고……/나는 이밤에

25) 유승무·박수호, 『불교와 근대성의 '또 다른' 만남』, 『사회와이론』 9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06, 57쪽.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곶줄 꼴라보리니/가는 버들인양 가락에 맞추어  
흰손을 흔들어지이다.

- 『古風衣裳』 전문<sup>26)</sup>

이 시는 전통 의상의 미적 우수성과 이를 입고 춤을 추는 여인의 우아한 모습을 형상화한다. 한복의 아름다움은 “살살이 퍼져나린 곧은 선”의 이미지와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주빛 호장”의 색채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며 형상화된다. 이러한 이미지는 “처마끝에 곱게 늘이운 주렴”과 중첩되어 한복 외양의 아름다움을 더욱 선명하게 확장시킨다. 더욱이 여인이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는 가볍고 우아한 몸놀림은 한복의 동적인 아름다움까지 표출한다.

한복의 아름다움은 “봄밤”에 “두견”소리가 들리는 현실과 대비된다. “半月”이 뜬 현실에서 한복은 민족적 가치관이 내재된 대상으로 당대의 암울한 상황을 자각시키는 매개이다. 한복을 입은 여인의 춤사위에는 일체의 억압으로 퇴색된 민족적 가치가 현재에 부합한 모습으로 내재되어 있다. 민족의 전통적 가치가 과거의 것을 단순히 계승하여 답습하는 것이 아닌 현 시점에 맞게 창조<sup>27)</sup>된 것이다. 이렇게 한복의 전통적 가치는 현 상황을 타개할 정신적 가치이자 당대의 시대정신을 확립한다.

전통 의상은 해당 민족의 사회적, 자연적 조건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신적 가치까지 확립하는 민족 정체성의 표상이다. 전통 의상과 전통춤의 미적 우수성을 표면적으로 형상화한 시의 이면에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우수성을 표출하는 시적 의의가 함의되어 있다. 전통적 가치를 표상하는 의상의 미적 우수성과 그 형상 속에 내재한 민족 정체성의 확립은 이 시를 단순히 상고적인 시풍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

26) 조지훈, 『古風衣裳』, 『靑鹿集』, 앞의 책; 조지훈, 『詩-조지훈 전집1』, 앞의 책, 26쪽.

27) 조지훈에게 전통은 창조를 구체화시키고 창조는 전통을 진전시키며, 전통은 창조의 소재로 창조는 전통의 방법이다. (조지훈, 『문학론-조지훈 전집3』, 나남, 1996, 130쪽.)

라 전통의 근대적 표출이자 당대 현실을 타개할 근대 의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식민지 근대 한민족의 정체성을 억압하는 일제 치하의 행태에서 전통을 활용한 것은 사라져가는 전통의 가치와 이를 구현한 선조의 정신을 현 시점에서 새롭게 계승하기 위함이다.

높으디 높은 산마루/낮은 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내 홀로 긴 밤을/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아아 이 아침/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이제 눈감아도 오히려/꽃다운 하늘이거니/내 영혼의 촛불로/어둠 속에 나래 떨던 셋별아 숨으라//환히 트이는 이마 우/떠오르는 햇살은/시월 상달의 꿈과 같고나//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오래 잊었던 피리의/가락을 더듬노니//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사슴과 토끼는/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내 홀로 서서/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山上的 노래』 전문<sup>28)</sup>

이 시는 해방의 소회와 그에 내재된 민족<sup>29)</sup>의 정체성을 형상화하였다. 민족 해방은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성취가 아닌 타의적으로 성취되었다. 해방의 허무함은 시적 화자가 “무엇을 간구하며” 식민지 상황에서 “울어 왔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는 식민지 근대를 경험한 개인의 자기반성으로 해방에 대한 기쁨보다 타의적 해방에 대한 허무함에 기인한 자책이다.

해방의 현실은 타의적인 해방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아침”에 잔존하는 식민지의 폐해는 자주적 해방을 염원하게 한

28) 조지훈, 『山上的 노래』, 『歴史 앞에서』, 신구문화사, 1959; 조지훈, 『詩-조지훈 전집1』, 앞의 책, 136-137쪽.

29) 민족에 대한 근대적 사유는 자본주의와 인쇄 기술을 통해 언어의 속명적 다양성을 수용을 전제 하고, 이는 상상된 공동체의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을 창조하여 근대 민족이 등장할 무대를 마련한다. (베네딕트 앤더슨, 서지원 역, 『상상된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2018, 길, 82쪽.)

다. 또한 민족의 자주적 해방의 염원을 끝내 확립하지 못한 자기반성을 지속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방의 기쁨은 “시들은 핏줄”과 “사늘한 가슴”에 “은은히” 나타난다. 자주적 민족 해방에 대한 민족적 염원을 끝내 수립하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위한 민족의 단결은 해방을 가능하게 한 민족적 의지의 실천이자 가치이다.

시적 화자는 민족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염원하며 해방 현실 이면에 자리한 “어둠 속”에서 “떨던 셋별”에 주목한다. 민족 공동체의 원형을 수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믿음이 후속 세대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자주적으로 수립한 완전한 해방 공간이 아니라 “꿈”과 같은 불완전한 실체이다. 시적 화자가 불완전한 해방 현실을 수용하는 것은 현실에서 “오래 잊었던 피리의/가락”과 “노래”의 전통적 가치<sup>30)</sup>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전통적 가치는 완전한 해방에 대한 민족적 믿음을 지속시키며, “향기”롭고 “즐거”운 해방 현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해방에 대한 성찰은 근대 민족 국가 수립에 대한 염원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전통적 가치를 창조적으로 계승한 민족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되었다.

### 3. 자연에 대한 미적 수용과 감각적 인식 구현

근대 도시는 대표적인 근대 공간으로 기존 삶의 양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모든 가치가 자본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사회에서 인간의 탐욕은 도시를 넘어 자연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자연에 대한 정복욕은

30) 전통이 발명되는 것은 종종 낡은 방식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거나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낡은 방식을 의도적으로 활용 또는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에릭 홉스봄, 박지향·장문석 역, 앞의 책, 2004, 31쪽.)

도시의 확장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은 도시와의 모호한 경계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자연은 원초적인 속성을 유지한 채 근대 공간으로 편입되었다.

조지훈 시에서 자연은 근대의 폐해를 자각하는 공간이다. 근대 자연은 근대의 폐해를 부각시키고 그 폐해를 극복하면서 미적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근대 자연은 인간의 탐욕과 나약함을 자각시키며, 근대인의 결핍을 치유<sup>31)</sup>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감각을 자극시켰다. 근대 자연에 대한 인식은 자아를 주체로 인식하는 한국적 근대 의식에 기인한다. 이때 자연은 오직 바라보는 자의 인식에 의해서만 '의미'와 '형상'을 갖으며 언체나 '발견'되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는다.<sup>32)</sup>

주체의 감각은 자연을 근대의 미적 대상으로 재구성하였다. 감각이 근대 자연을 미적 대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것이다. 대상에 대한 감각 정보는 그 경험적 구체성으로 인해 대상을 이해하는 데 확실성을 부여<sup>33)</sup>한다. 이렇게 감각은 근대 자연의 관습화된 재현을 거부하고 현재에 맞는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단한 사립에/꽃잎이 떨리노니//구름에 싸인 집이/물소리도 스미노라//  
 단비 맞고 난초 잎은/새삼 치운데/별바른 미단을/꿀벌이 스쳐간다//  
 바위는 제 자리에/움짖 않노니//푸른 이끼 입음이/자랑스러라//아스럼  
 흔들리는/소소리바람//고사리 새순이/도르르 말린다.

- 「山房」 전문<sup>34)</sup>

산방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 내부의 개체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한

31) 엄경희, 「근대성과 자연합일의 시Ⅱ」, 『승실어문』 18권, 승실어문학회, 2002, 387-409쪽.

32) 김춘식, 「근대적 감각과 '발견'되는 자연」, 『현대문학의연구』 37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11쪽.

33) 최봉영, 「감각」, 우리사상연구소 엮, 『우리말 철학사전 3- 감각·근대·개인』, 지식산업사, 2003, 16쪽.

34) 조지훈, 「山房」, 『靑鹿集』, 앞의 책; 조지훈, 『詩-조지훈 전집1』, 앞의 책, 37-38쪽.

채 자연의 아름다움을 객관화하는 공간이다. 인간이 자연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비가시적인 심적 거리 때문이다. 이러한 심적 거리는 인간이 자연을 미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자연에 대한 미적 인식은 근대에 와서 가능해졌다. 근대 현실에 대해 자각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응하는 미적 원형으로서의 자연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자연의 순수한 공간성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확장한다. “꽃잎이 떨리”는 소리나 “물소리”는 자연의 정적을 깨는 소리가 아닌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 그 자체이다. 이렇게 자연의 순수한 공간성은 자연 그 자체로 드러나며 미적 원형의 공간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집”과 “미달이” 등 인위적 대상들도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그 자체로 자연이 된다. 자연이 근대에 재발견된 것은 인간에 의해 훼손당한 자연의 모습으로 근대를 인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감각이 자연을 재구성하였기 때문이다.

자연의 동적이고 정적인 이미지는 자연의 미묘한 아름다움을 확장시킨다. 자연을 아름다움의 원형으로 주목하는 것은 그것을 인지하는 인간의 감각 때문이다. 미적 대상으로서 근대 자연은 인간의 감각적 표출로 정립된다. 인간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 자체로 수용하기보다 여러 감각을 통해 재구성하는 것이다. 감각의 구현은 자연의 미적 모습을 확장하는데 기여한다. 언어는 자연의 미묘한 움직임과 그에 맞는 감정을 표출하는 데에 한계를 보였다. 이때 인간의 감각은 근대 자연의 아름다움을 포착하여, 재현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를 확장하였다.

무너진 城터 아래 오랜 세월을 風雪에 깎여온 바위가 있다.//아득히 손  
짓하며 구름이 떠가는 언덕에 말 없이 올라 서서//한 줄기 바람에 조찰  
히 씻기우는 풀잎을 바라보며//나의 몸가짐도 또한 실오리 같은 바람결  
에 흔들리노라//아 우리들 太初의 生命의 아름다운 分身으로 여기 태어  
나//고달픈 얼굴을 마조 대고 나죽히 웃으며 얘기 하노니//때의 흐름이  
조용히 물결치는 곳에 그윽히 피어오르는 한떨기 영혼이여

- 「풀잎 斷章」 전문<sup>35)</sup>

자연은 일상적 지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비함을 내재한다. 이는 대자연뿐만 아니라 나약한 “풀잎”에게도 내재된 속성이다. 특히 자연의 무한한 생명성은 인간의 유한한 생명성과 대비된다. 자연의 생명성은 자연이 지닌 미적 특성의 부분으로서 인간이 경외하는 대상이 된다. 이러한 자연 인식은 인간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근대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다.

“무너진 城터”는 “바위”와 대비된다. 여기서 “바위”는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제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무너진 城터”는 시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제 모습을 유지하는 자연은 인간의 유한성을 부각시킨다. 또한 “바람”이라는 외부 환경에 순응하는 “풀잎”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서도 제 자리를 지키는 존재이다. “풀잎”의 미약하지만 굳건한 생명력은 시적 화자의 현재 모습을 자각시킨다. 시적 화자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과 자연에 대한 동경을 감각적으로 지속한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우리들”로 동일시되는데 이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생명의 경이로운 기적이 발현되는 대상으로서, 겉모습만 구분될 뿐 태초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한다. 이러한 자연 인식은 전통적 자연관과 일치한다. 전통적 자연관은 과거에 한정된 자연관이 아닌 과거로부터 계승되어 ‘지금 현재’에 부합하는 자연관이다. 이러한 자연 인식이 가능한 것은 자연을 수용하는 인간의 감각 때문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감각적 반응이 근대적 삶에 대한 자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근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 의식과 이에 대한 무용함을 확인한다. 자연에 대한 신체의 감각적 반응이 자연에 대한 동경과 현실에 대한 자각을 동시에 진행시킨 것이다.

35) 조지훈, 『풀잎 斷章』, 『풀잎 斷章』, 창조사, 1952; 조지훈, 『詩-조지훈 전집1』, 앞의 책, 54쪽.

꽃이 지기로서니/바람을 닦하랴//주렴 밖에 성긴 별이/하나 둘 스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머언 산이 닳아서다//촛불을 꺼야하리/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뜰에 어리어//하이얀 미닫이가/우런 붉어라//묻혀서  
 사는 이의/고운 마음을//아는 이 있을까/저허하노니//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 「落花」 전문<sup>36)</sup>

이 시는 꽃이 지는 모습과 그에 대한 시적 화자의 감정을 형상화한다. 인간과 자연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그 관계를 유지하는 공존의 대상이다. 이때 자연은 인간의 미적 대상으로서 자리한다. 이는 자연을 수용하는 주체의 감각 때문이다. 따라서 꽃이 지는 풍경은 단순히 자연의 이미지가 아니라 ‘미적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매개<sup>37)</sup>로서 시적 주체의 감응을 촉발시킨다.

“꽃이 지”는 모습은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축약시킨 이미지이다. 생명의 소멸은 인간과 무관한 자연의 섭리이다. 그런데 시적 화자는 소멸의 숙명을 수용하는 “꽃” 앞에서 시적 “촛불을 꺼야” 한다고 다짐한다. “꽃”의 소멸을 수용하는 현실에서 회피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얀 미닫이”에 비친 “꽃”의 붉은 빛은 소멸의 강렬한 아름다움을 표출한다. 이렇게 생명의 소멸은 어떠한 인위적 요소에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속성이다.

시적 화자는 소멸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생명성에 대한 잠재되었던 상실감을 표출한다. 생명의 무상함은 시적 화자에게 무엇 때문에 “묻혀서” 살아야 했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을 실현시킨다. 그러면서 시적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숙명으로 수용하고, 자연을 통해 현실을 자각한다. 현실에 대한 자각은 “꽃이 지는 아침”, “울고 싶”은 감정의 직접적인 표출로 드러난다. 미적 심리로서의 ‘落花’가 자극한 시적 화자의 감각

36) 조지훈, 『落花』, 『靑鹿集』, 앞의 책; 조지훈, 『詩-조지훈 전집1』, 앞의 책, 28-29쪽.

37) 김춘식, 『근대적 감각과 ‘발견’되는 자연』, 앞의 논문, 5쪽.

적 반응은 삶의 무상함을 겹쳐히 받아들이는 주체적 모습을 보여준다.

#### 4. 혁명의 당위적 이해와 자유민주주의 지향

1960년대는 식민지, 해방, 전쟁 이후의 사회와는 또 다른 모순과 부조리를 내재하였다. 민중들은 당대 현실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였다. 특히 현실 변혁에 대한 열망은 대학생을 필두로 한 여러 집단의 자발적 참여로 실천되었다. 민중들의 국가에 대한 저항은 정권 교체를 이루었으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4·19혁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을 염원하는 시대정신의 실천적 운동이다. 제도로서 민주주의가 아닌 아래로부터 시작된 운동으로서 민주주의를 실현시킨 사건이다.

조지훈은 4·19혁명을 도의적 혁명이자 민주 혁명으로 이해한다.<sup>38)</sup> 정치적 이상의 자유민주주의를 현실 정치에서 실현시킨 4·19 혁명을 당위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민중들의 각성은 자아를 주체로 확립시킨 한국적 근대 의식이 근대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sup>39)</sup>으로 발전됨에 따라 나타났다. 이러한 혁명 정신의 순수성은 선대의 혁명에 대한 정신적 가치를 계승한 결과이다. 즉, 자유로운 세상을 수립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열망은 한반도에 대한 주인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혁명은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적 가치로서 실천된 것이다.

조지훈은 '4·19 의거'의 주동을 학생, '억센 동반자'는 시민, 의거를 혁명으로 유도한 것은 교수의 역할<sup>40)</sup>로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여타 지식

38) 조지훈, 『혁명에 부치는 글』, 『지조론-조지훈 전집5』, 나남, 1996, 175-181쪽.

39) 전근대적 국가는 국가 정체성을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부여했다. 그러나 근대 국가는 국가 정체성을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결정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선택한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은 근대 국가 형성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특히 한국적 근대에 드러난 주인의식은 동학농민운동, 3·1운동, 4·19혁명 등으로 표출되었다.

40) 조지훈, 『사월혁명에 부치는 글』, 『지조론-조지훈 전집5』, 앞의 책, 148-149쪽.

인들이 지닌 ‘시민혁명의 콤플렉스’<sup>41)</sup>와 구분되는 지사적 면모를 내재한다. 조지훈의 지사적 면모는 유교적 전통을 내재한 한국적 근대 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sup>42)</sup> 특히 이러한 한국적 근대 의식은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이어진 한반도의 주인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했다.

네 벽 어디를 두다려 봐도/이것은 팡팡한 바윗속이다//머리 위엔 푸른/  
하늘이 있어도/숨구질 수가 없구나/民主主義여!//絶望하지 말아라/이대  
로 바윗속에 끼여 化石이 될지라도/1960年代의 暴惡한 政治를/네가 歷  
史 앞에 증거하리라//權力의 구뭇발이 네 머리를 짓밟을지라도/殘惡한  
총알이 네 등어리를 꿰뚫을지라도/絶望하지 말아라 絶望하진 말아라/民  
主主義여!//백성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면서/“우리는 民主主義를 信  
奉한다”고/외치는 者들이 여기도 있다/그것은 羊의 鬚를 쓴 이리//獨裁  
가 싫어서 獨裁主義와 싸운다고/손뼉치다가 속은 백성들아/그대로 絶望  
하진 말아라/民主主義여!//生命의 밑바닥에서 터져오르는 喊聲/그 불길  
에는/짓눌러 놓은 바위뚜껑도 끝내/하늘로 튕겨지고 미는 것//기슴을 팡  
팡 두다려 봐도/울리는 것은 自由의 心臟, 그것은 光明/暗黑의 별판에  
물질을 뚫고/구비치는구나 이 激流에/바위도 굴러내린다./絶望하지 말아  
라/이대로 가시를 이고 바다 속에 던져질지라도/不義를 憎惡하고 詛呪

41) 4·19혁명은 서구 시민혁명의 경험을 강하게 의식하였다. 일종의 ‘시민혁명 콤플렉스’는 서구 민주주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시민혁명의 투쟁 과정이 부재한 한국 상황에서 발생하는 한국 지식인들의 콤플렉스이다. (이상록, 『4·19민주항쟁 직후 한국 지식인들의 민주주의 인식』, 『사충』 71집, 고려대 역사연구소, 2010, 108-109쪽.)

42) 조지훈 후기시의 특징은 그의 유교적 의식, 혹은 지조론의 문제와 연관된다고 판단된다. (임곤택, 『조지훈 후기시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44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456쪽.) 이러한 시각에서 유교는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형식 그대로 유지되었다기보다는 외부로부터 가해진 근대화의 압박을 수용하면서 일종의 진화적 적응의 과정을 거쳐 근대 사회의 조건에 맞게 수정되고 변형되었다고 이해해야 한다. 근대적인 유교는 ‘사대부나 유교적 관리의 유가 사상’이 아니라 ‘보통 백성의 일상 윤리로서의 유가 윤리’이다. (장은주, 『유교적 근대성과 근대적 정체성』, 『시대와철학』 18권 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7, 397쪽.) 베버는 유교 문화와 그에 기반한 사회를 서양의 중세나 봉건 시대를 뛰어넘는 ‘(준-)근대적’ 성격을 지녔다고 주장한다. (장은주, 위의 논문, 403쪽.)

하는 波濤는/네 몸의 못자욱을/告發하리라 自由 아래/民主主義여!

- 「터져 오르는 喊聲」 전문<sup>43)</sup>

이 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욕망을 형상화하였다. “머리 우엔 푸른/하늘”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부재한 국가는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상황은 불안을 생성하며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요구한다. 시적 화자는 민주주의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호명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을 염원한다. 민주주의의 호명을 통해 시대의 울분에 저항하는 민중들을 단결시키고 그들의 절망과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민족 국가의 확립과 “自由” 정신 수호는 “1960年代의 暴惡한 政治”로 인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국권 회복에도 불구하고 주권은 특정 계층에게 용인될 뿐, 민중들에게는 표면적인 권리와 그 가치마저 박탈당한 것이다. 민중들은 “權力”에 의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호명하면서 주권재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한다. 혁명 정신에는 정상적인 근대 국가를 염원하는 주인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주인의식은 당대의 순간적인 반응이 아닌 선조들에 의해 형성되고 이어져온 민족적 정체성이다.

“羊의 탈을 쓴 이리”는 혁명 주체인 “백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묵살하며 그들을 선동하는 기득권 세력이다. 그들은 혁명 주체의 배후에서 위치하며 “民主主義를 信奉”한다는 명분으로 “民主主義”를 방해하고 음해한다. 혁명 주체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이용하여 권력을 쟁취한 그들의 악행은 오히려 민중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강화시켰다. 혁명 주체는 신성한 혁명 정신에 개입하는 기득권 세력을 경계한다. 기득권 세력은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혁명 주체 세력의 권리를 이양 받아 또 다른 “獨裁”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혁명 주체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은 “喊聲”으로 표출된다. “喊聲”

43) 조지훈, 『터져 오르는 喊聲』, 『餘韻』, 일조각, 1964; 조지훈, 『詩-조지훈 전집1』, 앞의 책, 252-254쪽.

은 혁명에 대한 개인의 의지와 염원이 결국 불특정 다수의 취합된 목소리를 표상한다. “喊聲”은 혁명의 생명성을 폭발시켜 고착화된 사회적 모순을 해결 가능한 상황으로 인지시킨다. 때문에 현실의 폐단을 외면하지 않는 혁명 의지는 “生命의 밑바닥에서 터져오르는 喊聲”과 같은 본능적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아 그것은 洪水였다/골목마다 거리마다 터져나오는 喊聲//백성을 暗黑 속으로 몰아넣은/“不義한 권력을 打倒하라”/良心과 純情의 밑바닥에서 솟아오른/푸른 샘물이 넘쳐 흐르는/쓰레기를 걸레 쪽을 구더기를 그/罪惡의 구덩이를 씻어내리는/아 그것은 波濤였다./東大門에서 鐘路로 世宗路로 西大門으로/逆流하는 激情은 바른 民心의 새로운 물길/피와 눈물의 꽃波濤/南大門에서 大漢門으로 世宗路로 景武臺로/넘쳐 흐르는/이것은 義舉 이것은 革命 이것은/안으로 안으로만 단았던 憤怒//온 長安이 출렁이는 이 激流 앞에/웃다가 외치다가 울다가 쓰러지다가/끝내 흠여 지지 않은 피로 물들인/온 民族의 이름으로/일어선 蒼여//그것은 海溢이었다/바위를 물어뜯고 왕각 넘치는/不退轉의 意志였다. 高貴한 피값이었다//正義가 이기는 것을 눈앞에 본 것은/우리 평생 처음이 아니냐/아 눈물겨운 것/그것은 天理였다./그저 터졌을 뿐 터지지 않을 수/없었을 뿐/愛國이란 이름조차 차라리/붙이기 송구스러운/이 빛나는 波濤여/海溢이여!

- 「革命」 전문<sup>44)</sup>

이 시는 혁명에 대한 생체험의 문학적 재현을 자기서사를 통해 형상화한다. 자기서사<sup>45)</sup>는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자기 상황을 우회적으로 이해시킨다. 이러한 자기 객관화는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과 공동체는 자신들의 실제 역사가 되는 이야기를

44) 조지훈, 「革命」, 『餘韻』, 앞의 책; 조지훈, 『詩-조지훈 전집1』, 앞의 책, 255-256쪽.

45) 이야기 주체는 “사유의 자기 확실성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자기 언어에 의해, 자기 행위에 의해, 그리고 자기 이야기에 의해 규정” 된다. (정기철, 『상징, 은유 그리고 이야기』, 문예출판사, 2002, 303쪽.)

수용함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sup>46)</sup> 이렇게 혁명에 대한 자기 서사는 혁명의 객관적 사실을 개인과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구현된다.

“백성을 暗黑 속”에 넣은 “不義한 權力”은 혁명에 대한 의지를 분출시켰다. 혁명의 의지는 홍수와 함성과 같이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비정형적 모습으로 표출된다. 이는 현실에 산재한 폐단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중들의 혁명 의지는 사회의 모순과 부패를 외면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의지이자 혁명의 명분이 된다. 이러한 혁명 의지는 기득권 세력의 “罪惡”과 병폐를 정화하는 “波濤”로서 현실에 투영된다. 혁명 의지가 “波濤”와 “海溢”의 자연 현상으로 표상되는 것은 혁명이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자연 발생적이고 순수한 의지이기 때문이다.

민중들의 “意志”이자 “피값”은 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혁명은 시대 상황에 분노하여 표출된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다. 혁명은 화합과 단결을 통해 자주독립의 국권을 수호하려는 동학사상의 혁명 정신에 근거한다. 동학 혁명은 한국 민중의 주체적·의식적 성장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우리 역사가 나아갈 개혁적이고 민족주의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근대화의 바탕이 되었다.<sup>47)</sup> 동학사상을 계승한 4·19혁명은 현실 내 존재하는 민중의 혁명 의지를 구현시켰다. 혁명 의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正義”를 “평생 처음” 자각한 것은 동학사상을 계승한 혁명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을 위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혁명의 구체적인 상황은 실제 지명을 통해 혁명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강화한다. 혁명의 이상적 모습은 현실적인 실체를 가진 채 현실 내 위치하며, 혁명에 대한 열망을 확장한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에 순응

46) 폴 리콥르, 김한식 역, 『시간과 이야기Ⅲ』, 문학과지성사, 2004, 473쪽.

47) 이현희, 『동학혁명의 전개와 근대성』, 『동학학보』 3집, 동학학회, 2002, 33쪽.

하는 전근대적 체제와 구분되는 근대 체제의 특징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수용하는 전근대인과 달리 근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명감은 근대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에서 비롯되며, 「革命」을 형상화하는 자기 서사의 근거가 된다.

獅子는 잘 怒하지 않는다./陽地 쪽에 누워 즐고 있는 그에게/돌이라도 던져 보라./천천히 고개를 들어/周圍를 한번 둘러보고는/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다시 조으는 그 風度를 보라.//아 懶怠와도 같은 無關心 속에/저 曠野를 疾風과 같이 휘몰아가는/奮迅의 氣概가 깃들어 있음을/ 그 누가 알 것인가.//病들었다던 四月의 獅子들이/그날 獨裁의 牙城을 향하여/달려가던 피의 자국을/우리는 역력히 보았더니라.//獅子는 함부로 외치지 않는다./외치듯이 그것은 소리 없는 絶叫/기인 하품일 뿐/날씬한 몸매를 거창한 머리의/위엄으로 감추고/조용히 기지개 켜는 그 餘裕를 보라.//이 安逸과도 같은 도사림 속에/저 百獸를 摺伏시키는/望天의 獅子들이 깃들어 있음.//잠자는 四月의 獅子들이/이제 무엇을 向하여/그 울부짖음을 터뜨릴 것인가를/우리는 역력히 지켜볼 것이다.

- 「獅子」 전문<sup>48)</sup>

이 시는 4·19혁명 이후 당대 현실을 “獅子”의 행적을 통해 형상화하였다. “獅子”는 혁명 주체의 힘과 의지를 표상한다. 그러나 현실의 “獅子”는 “陽地”에 누워 안락한 삶을 즐기며, “돌”이라는 외부 충격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시적 화자는 혁명 이후 혁명 주체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안일한 태도를 염려한다. 이러한 태도는 혁명을 완수하지 못한 패배 의식과 혁명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혁명을 완수하려는 의지와 “氣概”가 혁명 이후 현실에서 아무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채 방치된 것이다.

48) 조지훈, 「獅子」, 『餘韻』, 앞의 책.; 조지훈, 『詩-조지훈 전집1』, 앞의 책, 270-271쪽.

시적 화자는 혁명 주체의 본 모습을 기억하며 혁명의 동력을 상실한 현실에서 그 모습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시적 화자는 “獅子”의 “위엄”과 “餘裕” 속에서 현실에 대한 분노와 혁명에 대한 의지가 확인하였다. 그런데 혁명은 사회 모순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동반한다. 혁명은 사회 병폐에 대한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며, 개인적 불만에 대한 표출도 아니다. 즉, 혁명은 사회의 불합리한 모습을 포착한 주체의 개인적 결단이 공동체 연대로 확장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혁명에 대해 “함부로 외치지 않”는 혁명 주체의 태도에는 혁명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실현시킬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혁명 이후 현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완벽히 성취하지 못했다. 혁명은 현실에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구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끊임없이 소환시키며 혁명 주체의 안일한 태도를 경계하는 것은 혁명 이후 또 다른 혁명의 가능성이 현실 내 실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적 화자는 혁명 의지를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혁명 주체의 각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 5. 결론

이 글은 조지훈 시에 드러난 근대성에 주목하여 그 양상과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서구 중심적’ 근대성의 시각이 아닌 근대성의 다중적 양상을 수용하는 시각을 반영하였다. 조지훈 시에 드러난 근대성은 서구의 근대를 한국적으로 수용하여 발현시킨 시적 양상을 보였다. 조지훈 시의 근대성은 당대의 보편적이고 특수한 경험으로서, 1930-40년에 한정된 시대적 반응이 아닌 1960년대까지 지속된 조지훈 시의 미적 논리였다.

조지훈 시의 전통 지향은 단순히 과거의 가치에 의의를 두는 시적 경

향이 아니라 전통의 현재적 가치를 이해한 시적 특징이었다. 조지훈이 주목한 전통은 근대에 창안된 시대적 요구로서 민족의 단결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전통은 민족의 가치관이 투영된 산물로서 민족의 정체성까지 확립시켰다. 이렇게 전통의 근대적 표출은 당대 현실을 타개할 근대의식으로서 민족 해방과 민족 국가 건설의 열망을 표출하는 기반이 되었다.

조지훈 시가 형상화한 자연은 근대의 폐해를 자각하는 공간이었다. 자연을 통한 근대에 대한 자각은 자연을 근대의 미적 대상으로 삼았다. 근대에 와서 자연이 미적 대상으로 자리하는 것은 근대 자연이 인간의 탐욕과 나약함을 자각시키는 동시에, 근대인의 결핍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감각을 자극시켰기 때문이다. 자연은 감각을 통해 미적 대상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감각은 근대 자연의 관습화된 재현을 거부하고 현재에 맞는 사유를 가능하게 하였다.

조지훈 시가 형상화한 혁명은 정치적 이상의 자유민주주의를 현실 정치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민중들의 주인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혁명 정신은 선대에서부터 이어져온 혁명의 정신적 가치를 계승한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혁명은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적 가치로서 실천되었다. 즉, 조지훈 시에서 혁명은 현실 질서를 확립하는 ‘한국적 근대’의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가치의 실현인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텍스트

조지훈, 『조지훈 전집1·2·3·5·7』, 나남, 1996.

### 2. 참고 논저

강호정, 「1930년대 후반 동인지 『白紙』와 조지훈 수록시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77집, 한양대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9, 107-133쪽.

김경숙, 「1920년대 한국시의 근대성 연구1」, 민족문화사연구소 엮, 『민족문학과 근대성』, 문학과지성사, 1995.

김경일,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백산서당, 2003.

김윤태, 「한국 현대시론에서의 ‘전통’연구-조지훈의 전통론과 순수시론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 13집,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209-235쪽.

김춘식, 「근대적 감각과 ‘발견’되는 자연」, 『현대문학의연구』 37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19-46쪽.

\_\_\_\_\_, 「낭만주의적 개인과 자연·전통의 발견-청록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의 전통과 반전통』, 국학자료원, 2003.

마살 버먼, 윤호병·이만식 역,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1994.

박성수, 「근대와 탈근대 또는 새로움에 대하여」, 『문학과학』 22호, 2000, 83-96쪽.

방민호, 「조선어학회 사건 전후의 조지훈」, 『우리문학연구』 30호, 우리문학학회, 2010, 29-52쪽.

베네딕트 앤더슨, 서지원 역, 『상상된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길, 2018.

신중화, 「‘모던modern’의 한국적 개념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사

- 상과문학』 27집, 동양사회사상학회, 2013, 5-48쪽.
- 아이젠스타트, 임현진 외 3인 역, 『다중적 근대성의 탐구』, 나남, 2009.
- 엄경희, 「근대성과 자연합일의 시Ⅱ」, 『승실어문』 18권, 승실어문학회, 2002, 387-409쪽.
- 에릭 홉스봄, 박지향·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 유승무·박수호, 「불교와 근대성의 ‘또 다른’ 만남」, 『사회와이론』 9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06, 53-78쪽.
- 이상록, 「4·19민주항쟁 직후 한국 지식인들의 민주주의 인식」, 『사총』 71권, 고려대 역사연구소, 2010, 103-133쪽.
- 임근택, 「조지훈 후기시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44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456쪽
- 장석만, 「우리에게 근대성 공부는 무엇인가」, 장석만 외 7, 『한국 근대성 연구의 길을 묻다』, 2006, 돌베개.
- 장은주, 「유교적 근대성과 근대적 정체성」, 『시대와철학』 18집 3호, 한국 철학사상연구회, 2007, 313-348쪽.
- 정기철, 『상징, 은유 그리고 이야기』, 문예출판사, 2002.
- 정지용, 『詩選後』, 『文章』 1권, 1939.
- \_\_\_\_\_, 『詩選後』, 『文章』 2권, 1940.
- 조춘희, 「조지훈 초기시의 혼재 양상 연구」, 『석당논총』 61호, 석당전통 문화연구원, 2015, 167-203쪽.
- 최봉영, 「감각」, 우리사상연구소 엮, 『우리말 철학사전 3- 감각·근대·개인』, 지식산업사, 2003.
- 폴 리콥르, 김한식 역, 『시간과 이야기Ⅲ』, 문학과지성사, 2004.
- 한스 울리히 고프레히트, 라인하르트 코젤렉 엮, 원석영 역,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3-근대적/근대성, 근대』, 푸른역사, 2019.

<Abstract>

## A Study on the Modernity of Cho Ji-hoon's Poetry

Kim, Tae-Woo\*

This paper grasped its aspect and meaning by paying attention to the modernity that appeared in Cho Ji-hoon's poetry. The modernity that appeared in Cho Ji-hoon's poetry showed a poetic aspect of the Korean acceptance of modernity.

In Cho Ji-hoon's poetry, tradition was a demand of the times created in the modern era. Tradition enabled the gathering of the nation as the mental foundation of the nation, and further established the identity of the nation. Modern tradition is a mental value that will overcome the reality of the time. It served as a foundation for expressing the desire for national liberation and nation-state construction.

In Cho Ji-hoon's poetry nature is a space that recognizes the harmful effect of modern times. The awareness of modernity through nature accepted nature as an aesthetic object stimulated human senses. Senses rejected the customary representation of modern nature and made it possible to reason appropriate to the present.

In Cho Ji-hoon's poetry, the revolution is a legitimate value derived from the sense of ownership of the people to realize liberal democracy in reality. The revolutionary spirit has inherited the spiritual value of

---

\* Jeonbuk National Univ

the revolution that has been handed down from the predecessors. The revolution was the people and ethnic group value of the “Korean modern” that established the reality order.

Key Words: Cho Ji-hoon, Modernity, Tradition, Nature, Revolution

■ 논문접수 : 2021년 3월 30일

■ 심사완료 : 2021년 4월 19일

■ 게재 확정 : 2021년 4월 20일